

지중해지역원 학술대회 발표요약문

2021. 07. 28. 허유희(부산외대 이탈리아어과 교수)

이탈리아 청년층의 음주와 가족주의

Youth Drinking in Italy and Familism

서구 사회에서 청년층의 음주로 인한 건강 훼손과 폭음에 의한 반사회적 행동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의 심각성을 세계보건기구(WHO)를 위시한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탈리아 청년층의 음주 관행을 살펴보고, 타 서구 국가들과 비교되는 알코올 섭취를 제약하는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알코올 소비와 사회적 피해가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탈리아에서의 청년층 음주문제에 대한 획일적인 관점이 지양되어야 함을 설명할 것이다.

특히 알코올 섭취를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요인 중, 타 국가들 보다 중시되는 가족주의라는 사회적 규범이 ‘책임감 있는 음주’를 강조하여 음주로 인한 피해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층의 음주 확산과 관련해 이탈리아의 청년층의 음주 문화의 현실은? 주변 서유럽 국가와의 차이는? 이탈리아의 가족주의가 어떠한 경로로 음주 확산에 제약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세계화 추세에 수반되는 탈 전통주의와 개인주의적인 경향은 이탈리아 청년층의 음주문화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청년층 음주’ 문제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사회의 구조와 문화적 이행(transition) 현상에 대한 진전된 이해를 본 연구는 의도하고 있다.